

‘동경 데이터베이스 2003’ 및 ‘인터미디어포럼 2003’ 을 가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경 국제 포럼 전시장에서는 ‘동경 데이터베이스 2003(DATABASE 2003 Tokyo)’ 전시회가 개최됐다. 이와 함께 오사카에서는 10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 ‘인터미디어포럼 2003(INTERMEDIA FORUM 2003)’이 개최됐다. 최근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및 GIS, 특허정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동경 데이터베이스 전시회와 인터넷&모바일 솔루션 기술력을 느낄 수 있었던 인터미디어포럼의 현장을 소개한다.

취재 신중훈 기자

현장 세미나에 참관객들 몰려

이번 동경 DB쇼는 크게 5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전시회가 진행됐는데 GIS 분야에서는 알프스, 코보플랜, GIS NEXT 등 14개 기업들이 참가해 일본내 GIS 서비스 및 기술력을 선보였다.

이 가운데 데이터정보네트워크의 아이넷(inet) MAP 솔루션은 2000년 12월에 업계에서 가장 먼저 국제인증기관인 SSCT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JAVA 기반 GIS 솔루션으로, 관계자는 순수한 일본의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JAVA GIS 엔진이라고 설명했다. 이 솔루션은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저가격화를 실현한 것이 특징으로 특히 분산 오브젝트 기술에 의해 종래의 Web GIS의 문제점을 극복했고, OS와 브라우저의 벽을 없애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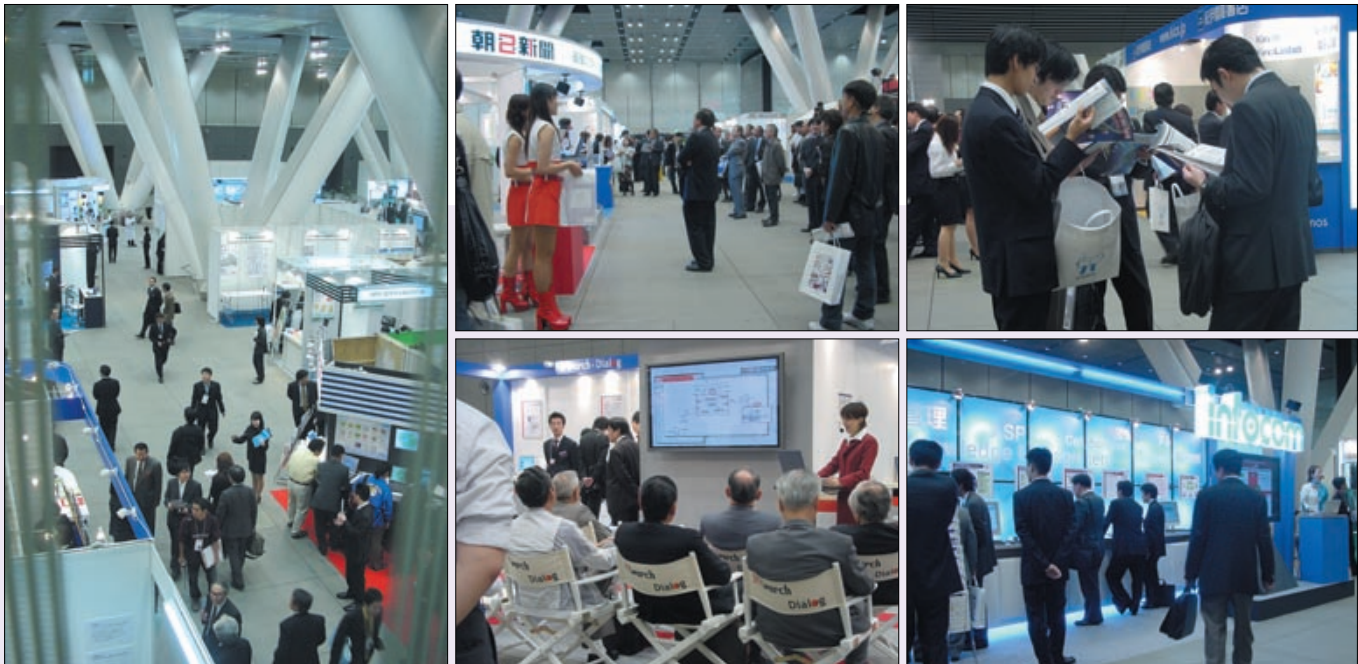
한편, JDPC와 KDDI, NTT데이터, 오키니 등 5개 기관 및 업체들은 G-XML 부문에 출전, GIS 관련 콘텐츠와 컨설팅 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솔루션 부문에서는 14개 업체가 참가, 각 기업의 최신 솔루션들을 선보이며 경합을 펼쳤다.

데이터 관련 솔루션 부문에서 주목받은 사피엔스 사는 콘텐츠 관리 및 전송, 과금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회사로 이번 전시



회에서는 신문, 잡지, 서적 등 종이 출판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플러그인 프리 웨블리싱(Pluginfree Weblishing)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이 인쇄물을 편집된 형태 그대로 웹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는 어도비스의 PDF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PDF 파일과 달리 특별한 뷰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필요가 없고, PDF 파일에 비해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어 그래픽이 중시되는 잡지 등의 웹서비스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인포브릿지 사는 복합기나 파일서버로부터의 데이터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Upload Agent'와 보다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Web 클라이언트 제품을 전시하는 등 다채로운 솔루션들이 선보였다.

100년 전통의 제국데이터뱅크 등 참가

종합부문에서는 제국데이터뱅크, 인포컴, 일본통계센터,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 아사히(朝日)신문 등 29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서비스 및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 가운데 제국데이터뱅크는 100여 년의 전통과 3,200여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정보서비스 기업으로 기업신용 정보, 마케팅 정보 등 직접 조사한 기업 정보를 온라인 및 모바일로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불량채권 처리, 기업 도산의 현황과 향후 전망', '거래 신용보험에 있어서의 기업 정보의 활용', '효율적인 여신 관리를 위한 Jade의 활용 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참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일본통계센터는 마케팅정보처리시스템, 전국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구, 세대수, 상업통계, 공시지가 등 공공정보들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

로 갱신하고 있어 일본에 대한 각종 통계조사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은 이번 전시회에서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나, 아직은 Text/html 형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PDF 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는 조선일보 등 국내 신문사들에 비해 전반적인 IT 서비스 수준은 한 단계 아래인 것으로 보여졌다.

조용한 가운데 진행된 인터미디어포럼

오사카에서 진행돼 총 72개 업체가 참가한 인터미디어포럼 전시회는 최신 인터넷 & 모바일 관련 동향과 화제의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한 강연회로 열린 '인터넷 & 모바일 2003'과 함께 진행됐으며, 인터넷 및 모바일 관련업체들의 서비스와 솔루션이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는 소규모로 개최돼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특히 NTT WEST의 무선인터넷 'FLET'S SPOT'에 대한 시연과 WISE SIPS의 3D 그래픽 건축 모델링 서비스 등이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FLET'S SPOT은 KT의 무선인터넷 넷스팟(NET-SPOT)



이번 <DATABASE 2003 TOKYO> 및 <Internet & Mobile 2003> 전시회는 규모면에서 국내 전시회에 비해 작았으나, 업계 관계자들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돼 내실 있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과 거의 유사한 서비스로 핫스팟 존에 설치된 무선 액세스포인트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무선인터넷 가입자가 아직 소수에 불과해 국내 시장에 비해 기술진보 및 시장활성화는 늦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3D 그래픽 기술력을 선보인 WISE SIPS사가 참관객의 이목을 끌었는데 WISE SIPS사의 SIPS란 'Strategic Internet Professional Service'의 약어로, 이 회사는 종합 e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시장조사, 콘텐츠, 웹사이트 구성,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e비즈니스 관련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XVL' 기술을 이용한 3D 컴퓨터 그래픽 제작기법을 선보였다. XVL 기술은 기존의 3D 데이터에 비해 1/100 이하의 초경량으로 3D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로, 웹상에서의 3차원 그래픽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건축물 또는 자동차 등 3D 그래픽을 필요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경우 웹상에서의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벤처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회에는 국제정보과학협회, 교토산업대학 등의 기관·연구소 등을 비롯해 만세전기, 서일본전신전화, 니혼사인, CEC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신기술 및 솔루션들을 선보였다.

한편, 함께 열린 '인터넷 & 모바일 2003' 행사는 첫날 열린 세션에서 '일본의 신 IT전략과 총무성의 향후 계획'에 대한 총무성 정보통신부장 다케우치 에이순(竹内 英俊)의 특별강연이 열렸고, 두 번째로는 NTT도코모 간사이 이사의 'FOMA로 변화되는 모바일 사회'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이어졌다.





■ 전시개요

〈DATABASE 2003 Tokyo〉

- 전시일자 : 2003년 10월 29일 ~ 10월 31일
- 전시장소 : 동경 국제 포럼 전시장
- 전시분야 : 데이터베이스, 프로듀서, 디스트리뷰터, 데이터베이스 관련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벤더, SI, 하드웨어벤더, 지리데이터베이스, GIS, 특허정보 등
- 주 최 : (재)일본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JDPC), 일본데이터베이스협회(JDINA)
- 공동주최 : 니혼게이지아이(일본경제)신문사
- 참가업체 : 아사히(朝日)신문사 등 86개 업체 및 기관

〈INTERMEDIA FORUM 2003〉

- 전시일자 : 2003년 10월 29일 ~ 10월 30일
- 전시장소 : 마이둠 오사카
- 전시분야 : 인터넷, 모바일 솔루션에 관련되는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서비스
- 모바일 · 무선 하드웨어 관련 : PDA, 태블릿 PC, 휴대전화 / PHS
- 모바일 솔루션 콘텐츠 관련 : CRM, 지도 정보 / 네비게이션 / ITS
- 인터넷 솔루션 관련 : 시큐리티, VoIP, ISP / ASP
- 주 최 : 대판부, (사)일본능률협회
- 공동주최 : 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IPA)
- 참가업체 : NTT WEST 등 72개 업체



관계자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

이번 〈DATABASE 2003 Tokyo〉 및 〈Internet & Mobile 2003〉 전시회는 규모면에서 국내 전시회에 비해 작았으나, 업계 관계자들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돼 내실 있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사의 기술 및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세미나, 프리젠테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많은 수의 기업들이 설문조사를 통한 참관객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전시회가 진행됐던 점이 국내 전시회와는 차이를 보였다.

오사카에서 진행돼 총 72개 업체가 참가한 인터미디어포럼 전시회는 최신 인터넷 & 모바일 관련 동향과 화제의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한 강연회로 열린 '인터넷 & 모바일 2003' 과 함께 진행됐다.

